

'96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편집부 -

가금인플루엔자 국내 최초 발생

그 성 바이러스성 제1종 법정 점염병으로 분류된 가금 전염병으로 닭에 감염시 폐사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가금인플루엔자는 그간 미국, 영국, 호주, 멕시코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발생 사실이 보고 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에 최초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

금년 3월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에 소재한 종계장에서 병원균이 분리되었으며, 그 후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로 확산되다가 정부의 즉각적인 농장 폐쇄 조치와 아울러 살처분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 발병이 확인된 종계군을 전량 살처분한 결과로 또다른 확산은 없었다.

이번에 발생하였던 가금인플루엔자는 다행히 실험실 검사에서 폐사율이 75%가 넘지 않는 약독성이어서 OIE에 보고는 되지 않았으나 약독이 맹독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발병이 없도록 계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완벽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여 수직·수평 감염을 차단해 나가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수산부 농림부로 개칭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제 개정안이 발효되어 농림수산부의 명칭이 농림부로 바뀌었으며 종전의 수산관계 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하였다.

축산단체, 학계, 업계대표로 구성된 축산발전추진위원회는 농무부로의 개칭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산국의 직제 개편도 건의하였으나 축산정책과, 축산물 유통과, 축산경영과, 가축위생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육용 실용계 수입종란 할당관세 적용

'94년 여름 무더위 피해로 종계업계가 국내 육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병아리 생산에 차질을 빚자 병아리 값이 치솟고 생산량마저 감소하여 닭고기 가격이 2천원선까지 상승하자 육계농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그간 수입 관세가 29.4%였던 수입 종란을 전반기 5·6월에 한해 650만개, 하반기 7·8월분 300만개에 대해 할당관세 2%를 적용하여 병아리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650만개 중 할당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종란은 총 5,263,000개였으며, 하반기분은 업계의 자율조절 노력에 따라 수입실적이 없었다.

이후 국내 육계경기는 말복부터 생산 과잉 현상을 빚어 생산비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만큼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어 수입종란에 의한 긴급 처방의 역효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다.

닭 살처분 보상기준 마련

정부는 가금인플루엔자 등 법정 전염병의 발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닭 살처분시 지급할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상기준은 일단 정부, 생산자 단체, 업계 관련자 등이 협의한 것으로 보상 기준은 상한선이며, 지급시에는 각 도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농가 상태에 따라 결정된 보상기준은 초생추 700원, 종계 22주령 6,300원, 70주령 이상 1,400원, 주령 경과시 낮아지며 육용실용계 3천원, 산란실용계 22주 기준 3,500원, 78주 이상 500원,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50%선이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고시

농림부는 종계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계사육 농장의 인증요령 및 등급기준을 정하여 지난 8월에 고시하였다.

검사대상 전염병은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 마이코플라즈마로 우수 종계장의 등급 기준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은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이며, 2등급은 검사대상 전염병 중 2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이나, 추백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우수 종계장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종계장 관할 시험소장에게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닭고기 유해잔류물질 검사

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닭고기에 대해 항생제 및 합성 항균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전면 실시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식용으로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농가에서 출하된 닭이 도계장에 도착하면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을 받으면 도계 자체가 금지된다.

수입개방에 대비하고자 국내산 닭고기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육계 농가에서는 출하전에 반드시 휴약 사료를 급여하는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조란(전란액)양허관세 수입 추천

쿼터방식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전란액은 그간 수입 신청이 없어 수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당초의 기대를 깨고 지난 6월에 제과·제빵용으로 544.2kg이 수입이 되었다. kg 당 단가는 1,327원이었다.

전란액은 본회의 추첨을 받아야 하는 데 '97년에는 13,444.2톤이 44.9%의 관세가 적용된

다.

수입량은 적었지만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입이 시도되었다는데에 채란업
계에서는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난가고시 현실화 조치

금년은 계란 생산량이 적어 난가 고시는 사
상 유래 없는 가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농장 수취가격은 다운 폭이 매우 컸다.

특히 6월을 전후하여 난가가 혼미상태를 보
이자 농가의 손실이 커져서 난가조절에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 상인 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7월1일자로 난가를 현실화하였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이해 부족과 상인들의 흥
보 부족이 겹쳐 결국 2~3중 시세만 더 강화시
키는 현상이 되어 시행 1개월이 채 못되어 사
실상 전면 백지화 되었다.

이 결과로 생산자간, 상인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후유증을 낳는 결과를 빚어냈다.

중계·부화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중계·부화 업계는 그간 부화협회의 설립허
가 취소 조치가 내려지는 등 업자간의 활동이
부진하여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고가의 병아리 값이 폭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
하는 7월에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
어갔다.

그간 수입 종란에 대처하지 못하여 국내 중
계사육수의 증가와 더불어 말복이후 육계 가격
이 폭락한 가운데 병아리 값도 하락세를 보이

자 조기에 진화를 시킨다는 취지를 살려서 노
계도태, 병아리 폐기처분, 종란 수입 업체에
공동 병아리 공급으로 수입종란 수입 제한 등
짧은 기간에 커다란 현안들을 해결하는 활약성
을 보였다.

시중 유통닭 살모넬라감염 보도 파문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시중
유통닭의 살모넬라 감염 결과가 지난 10월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가 됨으로써 장기간 불황
에 시달려 온 육계 농가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이에 본회 육계분과 위원회는 수의과학연구
소가 분석한 자료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농가지
도 차원에서 연구 분석한 자료가 농가에는 대
처 방안 제시도 없이 언론에 공개한 경위와 해
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국의 공식 해명과, 수
의과학연구소의 책임자 문책, 공식사과로 일단
란 되었다.

사계유통 보도 이후 2번째로 언론을 통해 마
치 전체 육계가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소비자에
게 비취져 육계값은 800원 선에서 600원 선으
로 하락함과 동시에 소비가 급감되어 금년 하
반기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 분위기의 각종
악재가 닭고기 소비를 위축시켜 왔는데 공영
방송 매체를 타고 닭고기의 문제성이 제기되어
육계농가의 타격이 더욱 컸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
계업계의 공동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